



전북대 오영민 교수, 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오영민 교수(의대 신경외과학교실)가 척추 수술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3D 나노섬유 골대체체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제64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매년 최근 2년 내 출간된 논문 중 학술성을 인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선정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경외과 전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했다.

이에 따르면 오 교수는 척추 수술에서 중요한 요소인 골유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가의 DBM을 소량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D 나노섬유 골대체체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분자 수지에 DBM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경사형 전기방사 장치를 통해 3D 나노섬유 매트 형태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관련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최신호에 발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오영민 교수는 "이번 학술상 수상은 전북대병원 신경외과학교실의 일원으로서 큰 영광"이라며 "기존의 고가 골대체체를 대체할 수 있는 3D 복합 나노섬유 골대체체 개발로 척추 고정술 등에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 대강면, 행복관리길 행사 개최

남원시 대강면은 6일, 대강행복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행복관리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남원의료원, 남원시보건소,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남원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고령차유 의숲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 등 10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치매예방 프로그램, 즉석 림프관 및 생강차, 건식족욕 및 온열치유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총 90명의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기환위원장은 "앞으로도 대강면 지역에 적합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연계에 큰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이 6일 향토회관 야외무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회장 김용식)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읍·면분회장을 비롯한 900여 명의 노인회원과 순창시 군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댄스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90분간 이어진 식전 행사에서는 청춘댄스를 비롯해 장구 난타 하모니카 등 총 5개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특히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만큼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순창읍 오순이 회원을 비롯한 26명의 유공자들이 군수상(11명), 의장상(4명), 노인회지회장상(11명)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용식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참석해 주신 노인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희 기자

'마을이 미래다' 활기찬 진안

2024 진안군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료

진안군 마을민들복지원센터는 5일~6일, 이틀간 2024 진안군 마을공동체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민들복지원센터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김장한마당, 농촌활동가교류회, 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날 만든 김장은 지역이동센터와 장애인센터에 전달되어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6일 열린 본 행사는 진안군 문예체육회관과 마이골짜기 은영화관에서 열렸다.

진전성 군수를 비롯해 마을 대표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백운면 두원마을 풍물놀이 리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마을민들기 우수마을의 활동 영상 상영과 시상, 희망과 열원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읍·면 활성화

센터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 동안 마련된 성과 전시 부스에서는 마을민들복지원센터 소속 입주단체와 촌스런 마을여행 참여 마을의 활동이 소개됐으며, 9개의 소규모 공동체와 7개 읍·면 활성화센터의 성과물도 전시됐다.

특히 마령화력센터와 사봉팔달센터에서 준비한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결과를 보니 뿌듯하고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성가족재단, 백학기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 특강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5일 '시와 영화, 힐링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백학기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젊은 시절 영어 교사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후 일간지 기자와 KBS호보실에서 근무하다 불혹이 넘어 영화배우와 감독으로 시작하기까지의 도전 이야기를 풀어내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섬진강 영화제 추진과 관련해 "디큐멘터리 영화이화중선을 촬영하며 순창의 산, 계곡, 평야를 안고 흐르는 섬진강변을 따라 영화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불씨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화를 한컷 한컷 촬영하는 것은 시적인 이미지와 유사하며, 그 수천 컷의 이미지가 연달아 이어지면 영화가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강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상처를 의미하지 말고 그것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타인의 연결과 공감을 통해 나눌 수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특강과 관련해 전정희 원장은 "상처받은 이들은 결국 예술로 힐링하고 자연을 통해 다시 나아가 힘을 충전하게 된다"며 "깊어가는 가을 밤, 시와 영화 이야기로 마음을 다독이도록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무주 구천초, 학부모·학생주최 바자회 성료

구천초등학교(교장 성방현)는 지난 10월 31일 교내에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전체가 함께하는 구천추추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에는 학부모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바자회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바자회는 특히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고, 학생들은 평소 애용하던 물품을 또 학부모님들은 소장하고 있던 좋은 물품을 아낌없이 제공해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학교는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마련된 금액 모두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학생회장 오모군은 "이번 기부를 통해서 어렵고 소외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의 자그마한 나눔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구천초 성방현 교장은 "이번 바자회 및 초록우산 기부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속에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비전대, 전문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공학과 2학년 SNAP 팀이 IINC 3.0 사업 전문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3단계 신학년연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IINC 3.0)에 참여하는 전국 59개 전문대학에서 68개 캡스톤디자인 우수작품들이 출품됐다.

특히 SNAP 팀의 'Eco Farmer' 작품은 Wet-Dry 방식을 포함한 자동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개발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물고기 양식과 식물 재배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지도를 맡은 전기공학과 임진택 교수는 "학생들이 평소 관심있었던 분야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3차 농촌 왕진버스' 부귀면서 운영

진안군은 6일 부귀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3차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년 진안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림축산식품과 공동 주최하고 각 지역농협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9월 3일)는 진안농협 주관 2차(10월 17일)는 백운농협 주관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이번 3차는 부귀농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귀 및 정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200여 명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구강검사·구강관리 교육, 검안·돋보기 등을 지원했다.

이날 무료 건강검진에 참여한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간단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6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하이패스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나경균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의 지극으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된 나경균 사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지목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꿈.잇.다 프로젝트' 노트북 전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6일 '꿈.잇.다(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잇(IT) 채움' 노트북을 전달하고 디지털 역량교육을 지원했다.

공사는 보훈이동 '꿈 채움' 장학금 전달 사업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잇(IT) 채움' 노트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새만금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10명을 선정하여 취업 및 학업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인 노트북을 전달하고 AI 활용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방화문 안전관리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 피해 줄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꽃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피난로를 확보하고 구조대의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소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고장되어 있으면 역할을 하지 못해 화재 확산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관리 방법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밀폐걸 설치 금지 △도어록로저 인위적 조작 금지 △도어록로저 고장 발견 시 신속히 수리하기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적치금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운봉읍 지사현, 첫 공식회의 개최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8월 협의체 위원장 및 회원 구성 이후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운봉읍 각 직능단체장과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사회복자사 등을 포함 총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장에 신동열 운봉여행회장이 위촉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특화사업 총평과 2025년 사업추진 방향 공유 및 신규사업 제안 등 논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연합모금 사업의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협의체는 △영양플러스반 말발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운봉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